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92년 8월 7·8·10·11일 본회의는 국회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1992년8월1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제1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
- 3. 대법관(최종영) 임명동의의 건
- 4.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임명승인의 건
- 5.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 1. 제1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2
- 2.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 2
- 3. 대법관(최종영) 임명동의의 건 2
- 4.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임명승인의 건 2
 - o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인사 3
- 5.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김용태·이철·김정남 의원 외 281인 서면동의) 3

(15시03분 개의)

○의장 박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강천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준규 이번 임시국회는 원 구성 그리고 민생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난 1일에 소집되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뚜렷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 그 책임의 일단이 의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대표하고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 회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면한 정치문제를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또 오늘 오전 3당 간의 대표위원 간에 재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과 더불어 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러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도와주신 총무단 그리고 각 당의 간부 여러분들께도 한 번 더 본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각자가 이견을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칼자루가 칼자루 안에 있을 때 소용이 있지 일단 빼고 나면 녹슬은 칼자루가지고 이 21세기를 향하는 이 나라는 운명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 협상결과에 옛날 말로 화룡점정..... 용은 그려 놓고 눈동자를 안 그린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일단 용이 승천하기 전 눈동자를 그리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정기국회가 개최되

기 전에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서로 타협함으로써 정기국회부터는 원이 구성되고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는 정기국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달이 넘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전망입니다. 그동안 예산도 다루어야 하고 밀린 법안도 다루어야 하고 9개월간 열리지 못한 국회에 산적한 안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능률적인 기여를 위해서도 이번 이 협상의 좋은 시발점을 우리가 끝까지 좋은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경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07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나간 것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각 당 대표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158회국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자는 이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준규 그런데 지금 오늘 예정된 안건은 오늘 다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공무원들 우리 국회의 직원들 그리고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기자들 모두 휴가도 못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일까지 회기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일과 모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휴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휴회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

3. 대법관(최종영) 임명동의의 건

4.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임명승인의 건

(15시09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최종영) 임명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임명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에 김영준 전 감사원장을, 대법관에 최종영 현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임명하고자 각각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신 것이며,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 건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사무총장에 이광로 씨를 임명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국회의 동의 및 승인은 각각 투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의 능률성을 고려해서 일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인영 의원, 박주천 의원, 정창현 의원, 김동근 의원, 송영진 의원, 신계륜 의원, 원혜영 의원, 이석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강천구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좌우 양쪽으로 해 가지고 각각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투표 때에는 선거의 투표였기 때문에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투표는 대통령께서 임명지정을 해 가지고 동의 요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요청한 동의에 국회가 가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의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투표용지에는 이와 같이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관 그리고 사무총장 그리고 그 밑에 가부란이 있습니다. 이 가부란에 가냐 부냐…… 동의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성명을 이 투표용지에 기재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투표용지가 부란에 가 또는 부,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성명을 기재하시는 투표용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가지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 국무위원석 관계로 해서 서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투표를 양쪽에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좌측에 가서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박준규 의장, 황낙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낙주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3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하니깐 273매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3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먼저 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73표 중 가 190표, 부 81표, 기권 2표로써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최종영) 임명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73표 중에 가표 259표, 부표 14표, 그래서 대법관(최종영)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임명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73표 중 가표 196표, 부표 70표, 기권 7표로써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임명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사무총장(이광로) 인사

(15시54분)

○부의장 황낙주 그러면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이광로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 이광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천학 비천한 사람을 인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전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낙주 수고 많았습니다.

5.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김용태·이철·김정남 의원 외 281인 서면동의)

(15시55분)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김용태 의원, 이철 의원, 김정남 의원 외 28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 의원을 대신해서 민주자유당의 경기 미금시·남양주 출신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호 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4대 국회가 개원된 지 벌써 2개월이 경과했으나 원만한 국회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주요한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시기 등 정치관계 사안 등에 대한 여야 간에

현저한 입장 차이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예에 관한 입법문제를 협의 결정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극히 우려하는 오늘의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대통령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를 협의·심사하기 위하여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도록 18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정기국회 직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낙주 부의장, 박준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박준규 그러면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랜 산고 끝에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가 남은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국회가 9월 14일이지요? 중추휴가관계로 9월 14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등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원 구성도 아직 못 했는데 정기국회가 되면 원 구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개회기간은 한 석 달 남짓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두 달 남짓 하지 않나, 그동안에 이 모든 안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되려면 이 특별위원회의 좋은 결말이 나기를 간곡히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4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 대한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여러분들의 알찬 휴가가 있기를 기다리고 또 특별위원회의 불철주야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의원 수(275인)

【보고사항】

○의안 제출

80년대해직예비군중대장의공로금지급에관한 특별조치법안

(8월 6일 황명수 의원 외 53인 발의)

발의자 황명수

찬성자	강삼재	강신옥	강우혁
	곽영달	곽정출	구천서
	김덕룡	김복동	김봉조
	김영광	김운환	김재광
	김정수	김종호	김진재
	김채겸	김한규	김형오
	남재두	남평우	노승우
	노인도	노인환	류승규
	류홍수	문정수	박관용
	박구일	박우병	박정수
	박주천	박희태	서석재
	徐廷和	서청원	송두호
	신경식	신상우	신재기
	심정구	오장섭	유수호
	이순재	이자현	이종근
	정상천	정석모	정재문
	조부영	최형우	허삼수
	황낙주	황윤기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휴회의 건

(8월 12일 의장 제의)

8월 13일 (2일간)
8월 14일

○서면질문서 제출

‘교육대개혁과해직교사원상복직을위한전국교사추진위원회’ 소속 교원의 징계 건에 관한 질문

(8월 6일 장영달 의원 외 10인 제출)

형법 개정안 등에 관한 질문

(8월 6일 이원형 의원 제출)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및 '92년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한 질문

(8월 6일 김충조 의원 제출)

이상 3건 8월 7일 정부에 이송

산업재해 등에 관한 질문

(8월 10일 박제상 의원 제출)

8월 11일 정부에 이송
청소년기본법에 관한 질문
(8월 10일 김명규 의원 제출)
8월 12일 정부에 이송